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20年の 成長과 1980年代를 向한 展望

俞

焄*

<目 次>	
一. 序 說	四. 1980年代의 目標와 展望
二. 第1次10年の 回顧	1. 碩士課程의 持續的 發展
三. 第2次10年の 目標와 實績	2. 政策學科의 新設
1. 碩士課程의 質의 水準의 向上	3. 博士課程의 發展
2. 高級管理者訓練課程	4. 學士課程(學部)의 新設
3. 行政學博士課程	5. 教授陣의 持續的 發展
4. 教授陣의 發展	6.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

一. 序 說

1959년에 創立된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은 1969年 創立10週年을 맞이하여 各種의 紀念行事를 가진 同時에 行政大學院의 過去를 回顧하고 未來를 展望하는 論文들을 教授들이 執筆하여 行政論叢 第7卷 第1號에 掲載했다.

創立20週年을 맞이하여 1979年 4月 各種의 紀念行事를 가지고 20週年을 紀念하는 論文들을 教授들이 執筆하여 本號에 掲載하기로 했다.

이 글에서 筆者는 第1次10年(1959~1969)에 行政大學院이 걸어온 발자취를 간단히 더듬어 보고 이어서 1969년에 세운 第2次10年(1969~1979)의 目標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目標들이 얼마나 達成되었는가를 스스로 評價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筆者는 第3次10年(1979~1989)에 行政大學院이 指向해야할 目標를 세워보고 앞으로의 展望도 試圖해 보려고 한다. 1989년에 行政大學院의 創立30週年을 紀念할 때 이와 같은 目標에 비추어 1980年代에 行政大學院이 이룩한 바를 回顧하는 尺度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二. 第1次10年(1959~1969)의 回顧

이 期間中 行政大學院이 걸어온 길을 回顧함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時代區分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筆者는 3期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院長

創立期라고 할 수 있는 第1期는 1959년부터 1962년까지로서 申泰煥院長의 努力으로 行政大學院이 많은 어려움속에 創立되기는 했으나 4·19, 5·16이라는 두번의 革命을 거치면서 많은 試鍊속에서 苦難을 겪은 時期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때에 닦아 놓은 基礎로 因하여 行政大學院이 오늘과 같은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優秀한 學生을 많이 吸收하였을 뿐만 아니라 充分한 豫算과 넉넉한 教授定員을 確保하여 오랫동안 行政大學院이 裕足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安定期라고 할 수 있는 第2期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인데 5·16後 行政學이 脚光을 받기 시작한데다가 金曾漢院長의 努力으로 行政大學院이 體制維持와 統合을 이룩할 수 있었던 時期였다고 하겠다.

오늘날 全國의 行政學徒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行政論叢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時期였으며 論文提出資格考查와 成績의 強制分布制度가 시작된 것도 이 時期였던 것이다.⁽¹⁾

1966년부터 1969년에 이르는 期間을 指稱하는 第3期는 行政大學院의 發展期라고 할 수 있겠다. 外部에서 迎入했다는 點에서는 同一하나 처음으로 行政學을 專攻하는 院長을 맞이하여 行政大學院이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時期였던 것이다.

新進教授들을 採用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行政管理中心의 教科課程을 改編했으며 行政大學院의 國際的進出도 크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중에 環境大學院으로 獨立해 나간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設置된 것도 이 時期였다.

三. 第2次10年(1969~1979)의 目標와 實績

1969年 創立10週年에 즈음하여 第2次10年(1969~1979)에 行政大學院이 達成해야 할 目標로서 (1) 碩士課程의 質의水準의 向上, (2) 高級管理者訓練課程의 新設, (3) 行政學博士課程의 新設이 提示되었으며, 이러한 目標를 제대로 達成하기 위한 (4) 教授陣의 持續的 發展이 強調되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年間に 이러한 目標가 얼마나 達成되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碩士課程의 質의水準의 向上

1969年의 글에서 李漢彬院長은 새 「타이프」의 行政官의 養成을 위한 碩士課程의 質의水準의 向上이야말로 이 機關이 繼續 追求해야 할 目標라고 했다. 「여기에 있어서의 窮極的인 評價基準은 行政大學院의 教育內容과 方法이 어떻게 大學學部(例컨대 法學科나 經濟學科)의 教科課程을 넘어서 그것이 줄 수 없는 高度의 能力과 指向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²⁾

(1) 이에 관해서는 金曾漢, 任期滿了報告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5. 參照.

(2) 李漢彬, 「開發年代의 機關形成—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最初10年의 成長과 70年代를 向한 展

多幸히도 지난 10年間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꾸준한 努力이 持續되었다. 1967年 11월에 改正된 教科課程에 의거하여 1968年度부터 「政策」「發展」 및 「計量分析」 등이 強調됨으로써 碩士課程의 質的水準의 向上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質的向上이란 計量化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것을 立證해 주는 間接的인 資料가 있다. 첫째로 碩士課程의 入試競爭率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76年度에 3對1이었던 競爭率이 1977年度에는 4對1로 上昇했으며 1978年度에는 4.8對1이 되었다. 1979年度에는 碩士課程의 募集定員이 100名에서 150名으로 늘어났음에도 不拘하고 4對1의 競爭率을 나타냈다.

冠岳캠퍼스로 移轉한 후 다소 沈滯를 免치 못했던 碩士課程 2部도 1977年度부터는 다소 志願者가 늘기 시작하여 1979年度에는 많은 志願者가 踴러왔으며 2部合格者 60名中 57名이 行政高試合格者라는 奇現象을 나타내기도 했다.

入試競爭率이란 大學院教育에 대한 社會的需要, 大學卒業生의 就業의 機會 등 客觀的인 與件의 影響을 많이 받는 것이나 他大學院의 入試競爭率과 比較해 볼 때 行政大學院의 높은 入試競爭率은 行政大學院教育의 質的水準이 向上되고 「이미지」가 크게 好轉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둘째로 碩士課程 1部 卒業生의 登用의 機會가 크게 열렸다는 것이다. 私企業과의 競爭으로 因하여 政府의 優秀人力確保가 過去보다 어려워졌다는 理由도 있겠으나 經濟企劃院, 財務部와 같은 主要部處가 1部 卒業生을 競爭의으로 採用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10年間 官界에 있어서의 行政大學院의 「이미지」가 크게 改善되었으며 行政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을 政府部處가 認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立證한다고 하겠다.

2. 高級管理者訓練課程

1969年の 글은 最高行政責任者層을 위한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의 設置를 1970年代에 解決해야 할 또하나의 目標로 提示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有能하게 遂行해갈 程度로 이 機關이 成長한다면 卒業生의 登用을 包含해서 行政大學院의 『이미지』는 決定的으로 好轉될 것」이라고 했다.⁽³⁾

多幸히도 2級以上の 公務員, 軍의 將星, 大規模公私企業體의 任員 등과 같은 高級管理者를 위한 短期訓練課程인 發展政策課程이 1971年 7월에 設立되어 1972年 10月 開講했다. 表1과 같이 그동안 10期에 걸쳐 253名の 修了者를 배출했는데 이를 職業別로 본다면 表2와 같이 國會議員 8名, 高級公務員 126名, 軍將星 62名, 國營企業體 任員 11名, 私企業體 任員 25名, 其他 21名이다.

望」行政論叢, 第7卷 第1號(1969), p. 11.

(3) 上掲文, p. 12.

〈表 1〉 發展政策課程 入學者 및 履修者의 推移

期別	區分	開 講 日 字	履 修 日 字	入學者數	履修者數
第 1 期		1972年 10月 10日	1973年 5月 31日	26名	23名
第 2 期		1973年 5月 10日	1973年 10月 31日	25名	23名
第 3 期		1974年 1月 25日	1974年 7月 10日	24名	22名
第 4 期		1975年 1月 31日	1975年 7月 8日	29名	27名
第 5 期		1976年 1月 26日	1976年 7月 1日	33名	32名
第 6 期		1976年 8月 25日	1977年 2月 3日	25名	23名
第 7 期		1977年 8月 29日	1977年 7月 20日	25名	23名
第 8 期		1977年 8月 29日	1978年 2月 13日	26名	25名
第 9 期		1978年 2月 20日	1978年 8月 30日	28名	27名
第 10 期		1979年 2月 20日	1979年 9月 5日	32名	28名

資料：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發展政策課程 要綱(1979~1980) p.2.

〈表 2〉 發展政策課程履修者職業別統計(第 1 期—第 10 期)

職 業 別	履 修 者
高級公務員	126名
國會議員	8名
軍將星	62名
國營企業體任員	11名
私企業體任員	25名
其他	21名
合 計	253名

資料：發展政策課程 提供

〈表 3〉 發展政策課程의 國家政策세미나

回	日 字	場 所	主 題
1回	1971. 10. 16~17	大 然 閣 호 텔	發展政策에 있어서의 高級公務員의 役割
2回	1972. 1. 21~22	아카데미하우스	經濟發展과 社會發展의 調整
3回	1972. 7. 6~ 7	文化觀光호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地域社會開發運動
4回	1973. 6. 16	코리아나호텔	새로운 公企業政策의 定立
5回	1974. 9. 27	코리아나호텔	1980年代의 韓國의 行政
6回	1974. 12. 13	코리아나호텔	地方行政力量의 提高
7回	1975. 6. 13	서 린 호 텔	國家發展과 人口政策
8回	1975. 12. 5	서 린 호 텔	大學教育政策의 檢討
9回	1976. 6. 25	코리아나호텔	庶政刷新의 理論과 現況
10回	1976. 12. 17	코리아나호텔	矯正行政의 實態와 進路
11回	1977. 6. 3	코리아나호텔	行政改革의 課題
12回	1977. 12. 9	코리아나호텔	知識產業發展의 展望과 課題
13回	1978. 6. 16	코리아나호텔	國家發展과 傳統의 政治文化의 再創造
14回	1978. 12. 8	코리아나호텔	1980年代의 政府管理機能改善
15回	1979. 6. 8	코리아나호텔	새마을運動의 戰略과 評價

資料：發展政策課程要綱(1979~1980), p.3

發展政策課程은 短期訓練課程뿐만 아니라 1년에 2회에 걸쳐 國家政策세미나를 開催하고 있는데 表3과 같이 그동안 15회에 걸쳐 重要的 「이슈」를 다루었다.

〈表 4〉 UNDP資金에 의한 教授海外派遣

教授姓名	派遣期間	研究主題	派遣國	派遣機關
金雲泰	1971年10月~1971年12月16日	海外視察	美國, 英國, 프랑스, 벨지움	(美) Brookings Institution Harvard 大學校 AMP. 행정대학원
			서독	(영) Administrative Staff Coll. (프) 행정대학원 등
徐元宇	1972年12月~1973年4月初	社會政策과 發展	英國	Administrative Staff College
俞 焄	1973年 1月末~1973年 4月初	高級公務員 訓練方法	美國	FEI
朴東緒	1973年7月15日~1973年8月17日	高級公務員 訓練技術	美國	Civil Service Commission
金海東	1973年 8月末~1973年12月末	行政形態研究方法	美國	Michigan 大學校
姜信澤	1975年3月中旬~1975年8月末	政治發展	美國	Harvard 大學校
金光雄	1975年6月中旬~1975年8月末	動機와 리더쉽	美國	Michigan 大學校
安海均	1976年1月初~1976年5月初	社會發展	美國	H.E.W. Univ. of California (Berkeley)
吳錫泓	1976年1月14日~1976年4月11日	發展行政	美國	Institu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diana University
趙錫俊	1979年7月初旬~1978年9月初旬	리더쉽	美國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盧化俊	1978年9月4日~1978年12月3日	科學技術과 公共政策	美國	The Center for Advanced Engineering Studies, M.I.T.
崔鍾起	1978年10月6日~1978年12月6日	國際關係	美國	Harvard 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金信福	1979年12月 예정	國家企劃	美國	Univ. of Pittsburgh

資料 : 發展政策課程 提供

이밖에도 發展政策課程은 教授陣의 「리오리엔테이션」과 發展에도 寄與했다. 發展政策課程에 대한 UNDP의 援助資金으로 表4와 같이 거의 全員의 專任教授가 海外에 나가 最近의 學問的 潮流에 接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었으며 UNDP資金에 의한 圖書購入은 서울 大學校 中央圖書館이 購入하지 못하는 最近發行의 圖書의 入手를 可能케 했다.⁽⁴⁾

3. 行政學博士課程

第2次10年の 또하나의 目標로서 行政學博士課程의 新設이 指摘되었다.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行政學의 重要機關으로 自處하는 限 自體뿐 아니라 全國의 行政教育機關을 위한 教授養成의 責任을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은 마땅하며 이런 見地에서 行政大學院이 이때까지 力點을 두어온 行政學碩士課程뿐만 아니라 博士學位課程을 위한 準備를 하여야 한다」

(4) UNDP資金으로 그間 購入한 圖書는 389卷에 達하고 있다.

〈表 5〉 行政學博士課程 年度別 入學者數

年 度	入 學 者
1 9 7 6	3名
1 9 7 7	6名
1 9 7 8	2名
1 9 7 9	7名
合 計	18名

資料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室提供

는 것은 當然한 理致라는 것이다. (5)

이 目標역시 實現되었다. 오랜 産苦 끝에 1976年度부터 行政學博士課程의 新設을 보게 되었으며 表5와 같이 1976年度부터 1979年度까지 合計 18名이 博士課程에 入學했다.

博士課程은 첫째로 嚴格한 選拔을 目標로 한다. 이리하여 博士課程에 入學하고자 하는 者는 職業(大學教授 除外)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優秀한 現職公務員들이 이 制限때문에 入學이 許容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徹底한 教育을 目標로 한다. 國內의 博士課程中에서 우리의 博士課程보다 더 徹底하게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自負하고 싶다. 授業을 徹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每學期末에 博士課程 受講生들은 그들이 擔當教授에게 提出할 term paper를 여러 教授들 앞에서 發表하도록 되어 있다.

4. 教授陣의 發展

1969年の 글은 教授陣의 發展을 明示的인 目標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前述한 여러가지 目標를 達成하고 그러한 事業들을 제대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教授陣의 繼續的인 發展이 必要하다는 點이 暗示되어 있다.

지난 10年間에 있어서 教授陣의 發展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努力이 傾注되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側面으로 나누어서 考察하고자 한다.

(1) 教授數의 推移

지난 10年間 專任教授數는 많은 變動을 거듭했다. 表6과 같이 1968年에 11名이었던 專任教授가 1969年에 13名으로 늘어났으며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設置로 한때 19名으로 增員되었다. 그러나 1973年 3月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環境大學院으로 昇格해 나감에 따라 專任教授가 14名으로 激減되었으며 1975年 3月 서울大學校綜合化計劃에 따른 冠岳캠퍼스移轉을 契機로 徐元宇 韓昇洙 教授가 專攻을 따라 各各 法科大學과 社會科學大學으로 移籍하고 李雄根 黃仁政 教授가 個人的 事情으로 辭任함에 따라 그 數가 더욱 減少되었다. 多幸이도 盧化俊, 金東建, 金信福 教授가 空席을 메우게 되어 1979년에는 專任教授가 13名으로 늘어났고 1980年에 가서는 專任教授가 16名으로 增員될 것이 豫想된다.

(5) 李漢彬, 前揭文, p.12

〈表 6〉 教授數의 推移(專任講師以上)

年 度	教 授	副 教 授	助 教 授	專 任 講 師	合 計
1 9 5 9	0	0	3	3	6
1 9 6 0	0	0	6	3	9
1 9 6 1	0	0	8	0	8
1 9 6 2	0	2	7	0	9
1 9 6 3	1	3	5	1	10
1 9 6 4	1	3	5	1	10
1 9 6 5	3	3	4	0	10
1 9 6 6	4	2	4	0	10
1 9 6 7	5	2	4	0	11
1 9 6 8	5	2	4	0	11
1 9 6 9	5	3	5	0	13
1 9 7 0	6	5	4	0	15
1 9 7 1	6	6	5	0	17
1 9 7 2	7	5	5	2	19
1 9 7 3	7	4	3	0	14
1 9 7 4	7	5	2	0	14
1 9 7 5	7	4	1	0	12
1 9 7 6	7	4	2	0	13
1 9 7 7	7	3	1	0	11
1 9 7 8	7	3	2	0	12
1 9 7 9	9	2	2	0	13

資料：每年度 서울大學校 統計年報

(2) 教授의 海外派遣

教授陣의 發展을 위해서는 教授들이 機會있을 때마다 海外에 나가 最近의 學問的潮流에 接하는 것이 重要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發展政策課程에 대한 UNDP의 援助資金으로 거의 全員의 專任教授들이 數個月間씩 海外에 나갈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多幸한 일이다. 最近에는 趙錫俊 姜信澤 教授가 文敎部資金에 의한 海外派遣의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가져 教授들의 研究를 위한 海外派遣이 더욱 빈번해 지게 되었다.

(3) 教授세미나의 定期的開催

教授陣의 發展을 위한 方案의 一環으로 教授세미나의 定期的 開催를 들 수 있다.

다른 教授의 關心事나 「아이디어」를 教授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取得하고 歸國한 行政大學院 卒業生들의 論文의 要旨를 듣고 檢討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教授들에게 刺戟이 되고 있다. 1976年, 1977年, 1978年에 各各 3회를 開催했으며 1979年에도 7회 가질 豫定이다.

(4) 調查研究프로젝트

行政學이란 實踐的인 學問인만큼 政府部處로부터 研究用役을 받아 政府各機關이 담당하

〈表 7〉 行政調査研究所의 研究實績

年 度	研 究 件 數	年 度	研 究 件 數	年 度	研 究 件 數
1959	1	1966	1	1973	5
1960	2	1967	3	1974	5
1961	3	1968	1	1975	4
1962	2	1969	1	1976	1
1963	1	1970	1	1977	5
1964	0	1971	4	1978	5
1965	1	1972	8	1979	10

資料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調査研究所要覽(1979), pp. 4-7.

고 있는 事業을 檢討하고 政府各機關이 지닌 組織・人事上의 問題點을 把握하는 것은 行政學의 適實性(relevance)의 向上을 위해서도 絶對로 必要하다. 表7과 같이 지난 10年間 行政大學院은 政府各機關이나 國內外財團 등으로 부터 많은 研究用役을 받았다.

四. 1980年代의 目標과 展望

우리는 위에서 行政大學院이 1969년에 어떠한 目標을 設定했으며 지난 10年間 이러한 目標을 어떻게 達成했는가를 考察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第3次10년에 該當되는 1980年代에 있어서 行政大學院이 指向해야 할 바를 提示하고자 한다.

1. 碩士課程의 持續的發展

지난 10年間の 努力으로 碩士課程教育의 質이 크게 向上되었으나 1980年代에 있어서도 이러한 努力이 繼續되어야겠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에 力點을 두어야겠다.

첫째로 1979年度부터 碩士課程의 入學定員이 100名에서 150名으로 增員되었으며 1980年度에 가면 行政大學院 在學生이 300名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增員은 자칫하면 入學生의 質的低下를 招來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防止할 것이냐 하는데에 留意해야 한다.

둘째로 每年 行政高試에 1部 在學生들이 많이 合格되는 것은 慶賀해야 할 일이나 行政高試가 正常的인 1部授業을 沮害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防止하느냐 하는 問題도 檢討되어야 한다.

세째로 碩士課程 2部에는 많은 行政高試 合格者가 入學하여 2部 合格者의 質的水準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나 이들의 中央公務員教育院訓練과 地方修習 등으로 休學者가 續出하고 있으며 長期缺席者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行政高試合格者가 2部를 거의 獨占하다시피 하는 關係로 公務員生活 10年이나 15年만에 2部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기를 願하는 中堅公務員의 入學이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碩士課程 2部가 지닌 問題도 解決案이 模索되어야 한다.

내재로 새로운 學問의 潮流에 맞추어 碩士課程의 教科課程을 修正해 나가는 努力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政策學科의 新設

「行政은 政策形成」⁽⁶⁾이라고 한 Paul H. Appleby의 말이나 「行政은 政策과 管理의 混合」⁽⁷⁾이라는 M.E. Dimock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行政學에 있어서의 政策의 重要性은 높아졌다. 特히 最近의 政策學의 登場은 이러한 傾向에 더욱 拍車를 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行政大學院의 教科課程에 있어서도 政策科目의 比重이 높아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不足한 것 같다. 行政大學院에 行政學科와 併行하여 政策學科를 設置할 때가 온 것 같다.

美國에서는 캘리포니아大學과 같이 政策大學院을 設置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行政大學院(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을 School of Public Affairs로 改編하여 政策分野에 倍前의 努力을 傾注하는 大學이 늘어나고 있다.

3. 博士課程의 發展

1976年度에 시작된 行政學博士課程은 嚴格한 選拔과 徹底한 教育을 目標로 삼아 比較的 順調롭게 運營되고 있으나 몇가지 點에서 補完이 必要한 것 같다.

첫째로 政策分野의 科目의 補完이 必要하다. 現在 博士課程에 있어서는 表8과 같이 7個 分野에 걸쳐 23個科目이 「오퍼」되어 있으며 所要學點의 取得이 끝난 사람은 4個分野에 걸쳐 論文提出資格考査를 보도록 되어 있다. 碩士課程에 政策學科가 設置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前이라 할지라도 政策分析分野教授의 新規採用을 契機로 하여 政策分野의 科目을 몇 科目 더 博士課程에 新設하고 政策分析을 새로운 分野(field)로 獨立시켜야 할 것이다.

〈表 8〉 博士課程 科目

分 野	科 目
方 法 論(I)	社會科學方法論, 調查設計, 計量分析(Ⅱ)
方 法 論(Ⅱ)	行政調查論(Ⅱ), 行政計量分析, 行政學方法論(Ⅱ)
行 政 理 論	行政과 概念分析, 行政과 體制分析, 政策分析, 行政哲學
行政思想 및 發展論	理念과 發展, 韓國行政思想史, 行政發展論, 行政과 社會變動
組 織 論	比較行政組織研究, 行政組織心理研究, 行政과 動機賦與, 行政과 情報
行政權과 經濟	財政動員論, 行政權과 經濟, 比較公企業
國際 外務 行政	國際行政演習, 比較外務行政演習

둘째는 副專攻制度의 新設이다. 現在는 主로 行政學科目 12科目(36學點)만 履修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外國의 많은 大學에서는 主專攻(major)뿐만 아니라 副專攻(minor)制度를

(6) Paul H. Appleby, *Policy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49), p. 170.

(7) M.E. Dimock and G.O. Dimock, *Public Administ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Holt, 1964), pp. 101-102.

두어 博士課程學生은 반드시 副專攻을 擇하도록 하고 있다.

理想的으로 말하자면 政治學, 社會學, 心理學, 經濟學, 經營學 등의 副專攻은 社會科學大學의 該當學科나 經營大學에 가서 學點取得을 해야 할 것이나 서울大學校의 實情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實效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當分間은 行政大學院에서 政治學, 經濟學 및 社會學을 博士課程의 副專攻으로 設定하고 該當科目을 行政大學院에서 「오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社會學擔當教授의 新規採用을 契機로 이 問題는 쉽게 解決될 수 있으므로 可及의 가까운 時日內에 實踐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제는 現職公務員의 博士課程入學問題이다. 行政學博士課程의 設置過程에 있어서 여러 가지 抵抗이 많았던 만큼⁽⁸⁾ 行政大學院教授會議는 嚴格한 選拔과 徹底한 教育을 위하여 現職公務員 등 職業所有者(大學教授 除外)의 入學을 當分間 不許하기로 決定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決定의 結果로 向學熱에 불타는 優秀한 現職公務員의 入學이 不許되고 있는 實情이다.

博士課程의 徹底한 教育이 어느 程度 뿌리를 내리면 1980年代 中盤에 가서는 現職公務員의 博士課程入學問題가 教授會議에서 다시 論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4. 學士課程(學部)의 新設

筆者는 다른 機會에도 行政大學院에 行政學士課程이 新設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으며 그 理由로서 ① 4級公務員의 需要, ② 行政大學院의 餘力, ③ 外國의 傾向, ④ 他大學에 미치는 影響을 지적했다.⁽⁹⁾

지금도 이 생각에 變함이 없으나 서울시內에 所在하는 大學의 學部定員을 夜間을 除外하고는 一切 增員하지 않는다는 政府方針에 따라 이것이 實現되지 못하고 있다.

最近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는 一部 教授들이 行政學科의 新設을 願했으나 法科大學의 內部的인 問題와 行政大學院과의 關係때문에 公法學科와 私法學科로 分科하기로 決定했다.

서울大學校에 行政學士課程을 設置해야 한다는 必要性은 提起되고 있으나 이것을 어디에다가 設置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論難이 있을 수 있다. 서울大學校綜合化計劃의 趣旨를 살리고 名實相符한 行政學教育의 實現을 위해서도 行政大學院을 行政大學으로 改編하고 行政學士課程을 여기에 設置해야 할 것이다.

5. 教授陣의 持續的發展

現在도 行政大學院의 13名의 專任教授 全員이 博士學位所持者이며 서울大學校內에 이러한 機關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提示한 1980년대의 여러가지 目標를 達成하고 이러한 事業들을 제대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教授陣의 繼續的 發展이 必要하다.

(8) 朴東緒, 「專門大學院의 發展戰略」, 行政論叢, 第14卷 第2號(1976), pp. 128-129.

(9) 俞 焄 「行政學과 行政의 發展을 위한 行政大學院의 課題」, 行政論叢, 第14卷 第2號(1976), pp. 31-32.

教授陣의 發展을 위해서는 첫째로 數的增加가 必要하다. 現在의 13名에서 1980년에는 16名으로 增員될 것이나 적어도 20名線은 넘어야 한다. 政策學科 및 行政學士課程의 新設은 勿論 1980年度에는 300名이 될 行政學碩士課程의 圓滑한 運營과 博士課程의 補強을 위해서도 教授의 增員이 必要하다. 社會科學大學이나 人文大學의 한 學科의 教授보다 적은 教授를 가지고 大學院이나 大學을 제대로 運營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¹⁰⁾ 外國에서 最近에 學位를 取得하고 歸國하는 少壯教授의 補強이 機關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도 絶對로 必要한 것 같다.

둘째로 急變하는 學問의 새로운 潮流에 接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기 위하여 教授의 海外派遣이 繼續되어야 한다. 50歲未滿의 少壯教授들은 文敎部資金에 의한 海外派遣의 惠澤을 입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機會를 갖지 못하는 教授들을 위해서 第2次 UNDP援助와 같은 것을 獲得해야 할 것이다.

6. 行政調查研究所의 發展

行政大學院 創設과 同時에 調查研究室로 發足하였다가 1967년에 擴大改編된 行政調查研究所의 活動도 지난 10年間 많이 活潑해졌는데 1980年代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를 解決한다면 더욱 發展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現在의 行政大學院附設 非法定研究所의 status를 적어도 行政大學院附設 法定研究所로 昇格시키는 問題가 檢討되어야 한다.⁽¹¹⁾

微微한 國庫豫算의 支援을 받는 代價로 빈번한 監査 등 外部로부터의 不當한 干涉을 받을 憂慮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強力히 推進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이 問題가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行政研究基金의 造成이다. 現在도 研究所가 多少의 研究基金을 保有하고 있으나 外部의 支援 등에 의하여 相當額의 基金이 造成되면 國庫로부터 matching fund를 얻어 3億元 내지 5億元 程度의 行政研究基金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세째로 이와 같이 研究基金이 造成된다면 現在 每年 3名の 教授에게 支援하고 있는 自體研究費를 增額하여 教授들이 願하는 研究를 제대로 支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째로 專任研究員의 確保이다. 專任講師級以上の 責任研究員의 確保는 當分間 어려울 것이나, 助教級의 研究員을 現在의 1名에서 3名 내지 5名 정도로 增員해야 한다.

(10) 現在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專任講師以上)數는 27名, 國文學科 教授數는 20名이며,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는 16名, 心理學科는 12名の 教授를 各各 保有하고 있다.

(11) 現在 서울大學校內의 各種 研究所의 status는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本部直屬 法定研究所이며 둘째가 單科大學附設 法定研究所이고 세째가 單科大學附設 非法定研究所이다.

(12)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은 China Medical Board에서 1億5千萬원의 研究基金을 獲得하자 이와 同一한 金額의 matching fund를 國庫에서 確保하여 保健研究基金을 造成했다.